

사랑하는 선교의 동역자님

— 이영찬 이사

지난 3년간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과 사방으로부터 불안과 근심이 엄습해 올 때 선교사 한 가정을 가이아나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Mission Impassible** 한 일을 **Mission Possible** 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강대성, 미희선교사 가정을 남미의 한쪽 모서리에 위치한 가난하고 영적으로 척박한 땅으로 파송을 하게 하셨습니다. 팬데믹으로 이전에 사역하셨던 C국에서 귀국하여 미국에서 발이 묶여서 있었던 두 분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매일 저희 교회 새벽기도회에 나오면서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회복하였습니다.

또한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한 번씩 저희 부부와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인하고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리며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고 성도들과 참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감동하심으로 두 분을 가이아나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선교사님이 가이아나로 가신 지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 저희들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선교는 파송받은 선교사들만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감당해야 할 주님의 지상명령이요 마지막 사명이기에 저희 교회가 단기선교팀을 구성하여 가이아나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이아나가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상영된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 옆에 있는 나라로 소개를 하곤 했습니다.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나라, 아직도 전기나 수도 등의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7월 17일부터 22일까지 저를 포함해서 8명의 단기선교팀이 가이아나를 방문하여 강대성, 미희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섬기게 될 것입니다. 수도인 **George Town** 에서 버스와 배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싹스칼리 지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VBS와 부흥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매주일 음식 바자회와 **Yard Sale** 을 통해서 모금을 했습니다. 가이아나에 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이아나의 영혼들을 사랑하심에 대한 믿음의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출발하는 시간이 다가오면서 매주일 단기팀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단기팀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2. 강대성,미희선교사를 돕고 격려하며 선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3. 먼 여정 가운데 안전과 팀원들의 건강과 무엇보다 영적인 하나됨을 지키게 하소서!
4.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서 오픈도어교회가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오픈도어교회 가이아나 단기선교팀 이영찬목사 드림
연락처 (714)904-0691

